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李 貞 信

(한남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1. 서 론
2. 고려 전기의 북방개척
3. 성종대 거란의 고려침입과 고려의 대응
4. 성종 이후 고려와 거란의 외교 추이
5. 문종이후의 대외관계와 윤관의 9성
6. 맺 음 말

1. 서 론

성종 12년(993)에 거란이 고려를 침입함으로써 고려는 왕조 수립 이래 최초로 이민족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¹⁾ 이때 고려의 대응

1)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나종우,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와 거란관계」, 『군사』 46, 2002.

은 어떠했으며 북진정책의 실현과 관련하여 고려는 어떤 목표하에서 거란을 상대했는지 살펴도록 하겠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조정은 항복하고 화친을 구걸하자는 측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黃州부터 岫嶺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측의 주장으로 나뉘었다. 이 둘 어디에도 외적과 맞서 싸우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처음 成宗은 割地論을 쫓기로 하였다가 徐熙의 설득으로 조건부 강화로 방침을 바꾸었다. 고려는 태조때부터 북진정책을 국시로 내걸었지만 성종대에 이르면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된 것 같다.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을 내세운 북진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국가확립, 고려만들기였던 만큼²⁾ 성종은 太祖에서 景宗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체제가 안정된 성종대에 이르면서 고려사회의 내부적인 안정을 고착시키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외 전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희 등의 주장으로 거란과 교섭하여³⁾ 고려는 여진을 축출하고 長興(泰川)·歸化의 2鎮과 龜州·郭州에 성을 쌓고 이듬해에는 다시 安義鎮(安州) 興化鎮(義州 南 55리)에, 다시 이듬해에는 宣州(宣川)·猛州(猛山)에 축성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를 고려 측은 280리 강토의 확장, 서여진의 복속, 麗·丹간의 완충지대 설정이라는 실익을 얻음에 반하여 거란측으

李龍範, 「10-12世紀의 國際情勢」, 『한국사』 4, 1981.

金在滿, 「契丹·高麗國交前史」, 『人文科學』 15, 1986.

方東仁,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1985.

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1.

李龍範,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 1977.

김상기,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2, 국편위, 1959.

姜大良, 「高麗初期의 對契丹關係」, 『史海』 1, 朝鮮史研究會, 1948.

2) 이정신, 「고려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3) 서희에 관해서는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 학연문화사, 1999. 박현서, 「북방민족과의 항쟁」, 『한국사』 4, 국편위, 1981. 266쪽 외 다수 논문이 있다.

로는 단순한 경역의 양보에 그치지 않고 제2차 거란의 침략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거란의 동여진 경략에 필수적인 요충지를 포기하였다고 하여⁴⁾ 고려 외교술의 일방적 우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외교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지로는 국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당시 나라를 세운지 60여년이 지난 거란이 외교에 미숙하여 서희의 의도에 끌려들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들이 양보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는 거란과 강화를 맺으면서 고려의 최전방을 압록강으로 한정시킴으로서 일시적으로는 영토가 확장되었지만 항구적으로는 고려의 국경선으로 고착되어 앞으로의 북진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상 더 북진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천리장성이나 윤관이 설치한 9성의 포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시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고려의 외교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고려전기의 북방개척

고려는 국초부터 옛고구려 영토 회복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 태조대에는 후백제와 전쟁에 주력하느라고 영토개척을 위해 북쪽으로 많이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광종대에 이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방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선 태조대부터 현종대까지 북방개척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는 태조이래로 북진정책을 시행하여 오늘날의 평안남도 지역 즉 평양·龍岡·咸從·成州(成川)·安水鎮(价川)·肅川 등의 요지를 모두 확보하였으며 평안북도까지 진출하였다. 정종대는 서북지방의 개척으로 德昌鎮

4) 박현서, 위의 논문, 268쪽.

(영변)·鐵甕(孟山)·博州(博川)의 확보와 더불어 30만의 광군사를 두고 거란을 방어하였다. 계속해서 광종대에 이르면 박천·태천·운산·영변·定州·嘉州(嘉山)까지 진출하였으며 경종대에는 淸塞鎮(熙川)에 축성함으로써 적유령 산맥 아래의 주요 지역은 모두 점령하여 이제 압록강 이남에서 남은 지역은 의주·龍州(龍川)·鐵州(鐵山)·通州(宣川) 등 압록강 서쪽 유역의 일부만 정도였다.

이에 성종은 압록강까지 고려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984년(성종 3)에 刑官御事 李謙宜로 하여금 압록강변에 관방을 축조하려다가 여진의 저항에 밀려 실패하였다. 그러나 성종 10년에는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성종대에 고려가 압록강 유역을 거의 점령했거나 최소한 이 지역의 여진세력을 고려가 장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고려의 진출에 거란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991년(성종 10)에 거란이 압록강 유역에 威寇·振化·來遠 등 요새를 설치하고 3,000명의 군사를 배치한 것은 압록강을 경계로 고려가 압록강을 넘어 영역을 넓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려와 거란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고려는 奴婢按檢法 등 강력한 豪族抑壓策을 실시했던 光宗으로 인해 왕권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어 성종대에 이르러서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崔承老로 대표되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안정된 왕권을 기반으로 앞으로 고려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된 점이다. 즉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성종이 흔쾌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이 고려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침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무 28조 중 남아 있는 22조에서 북방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1조 1개 뿐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첫째로, 우리 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47년이 지났는데도 병사들이 아직까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 지방

이 오랑캐와 이웃하여 방수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聖上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소서. 대체로 馬歇灘(청천강 유역)⁵⁾을 국경으로 삼음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石城(의주부근)을 국경으로 삼음은 大朝의⁶⁾ 정한 바입니다. 앞으로 두 곳을 전하께서 판단하시어 요충지를 가려 강역을 정하고 土人 중에서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자를 뽑아서 그 방수에 충당하고 또 그들 중에서 2~3명의 偏將을 선출하여 통솔시키면 京軍들은 교대로 防守하는 피로움을 면할 수 있으며 사료와 군량을 운반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⁷⁾

최승로의 상소문이 받아들여졌던 성종대는 승려가 국왕의 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國師 王師制뿐 아니라 팔관회 연등회도 폐지시켜 유교사회를 지향하던 시대였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최승로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상소문은 고려사회의 변하는 방향을 예시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태조 이래로 중시되던 북진정책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승로는 28조에 앞선 五朝政績評에서 거란에 대한 태조의 적개심에 동감을 표명했으며, 발해의 세자 大光顯의 歸附를 따듯이 맞아준 자세를 찬양하였다.⁸⁾ 그럼에도 그의 상소문에는 태조가 정한 마홀탄이나 경종이 설정한 압록강의 석성을 국경으로 삼아 방비하도록 건의할

5) 李基白 外,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6) 『海東繹史』, 地理志 西北路 沿革條에는 景宗을 가르킨다고 하였으며, 『국역 동문선』 V (민족문화추진회, 1977, 185)에는 중국을 가르킨다고 하였으며, 『崔承老上書文研究』에는 성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필자가 보건대 최승로는 지금 성종에게 강역을 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유학자 최승로가 이민족이라고 한단계 낮춰보는 거란을 大朝라고 할 리가 없으며, 송은 고려와 떨어져 있어 국경선 구축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大朝는 前代의 임금인 景宗이라고 생각된다(李基白 外,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79쪽註)10 참조).

7) 『高麗史』 93, 列傳 崔承老(我國家, 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未免糜費者, 以西北隣於戎狄, 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 以此爲念, 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戍, 又選其中二三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芻粟省飛挽之費).

8) 『高麗史』 93, 崔承老傳.

뿐, 더 이상 북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예로서 고려의 변방을 지키는데 土人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역설한 점이다. 토인이란 주로 여진족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영역에는 고려에 귀부하지 않은 많은 여진족이 살고 있었다.⁹⁾ 그럼에도 군사비의 절약을 내세워 고려의 군사가 아닌 토착인으로 변방을 지키게 하는 것은¹⁰⁾ 방어위주의 전략이지 오히려 땅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은 아니었다. 그는 국내의 안정, 유교사회의 구현에 관심을 두었을 뿐 거란의 대두로 야기될 수 있는 국토 분쟁이나 전쟁 위험성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

성종대의 기록을 보면 국내의 정치에 주력한 듯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성종은 즉위한 직후에 팔관회에서의 雜技를 폐지하였으며, 2년에는 팔관회를 폐지하고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불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교 사회로 나아갈 것을 표방했다. 또한 2년 정월에는 圓丘에서 풍년을 기도하고 太祖의 神位를 원구에 모시고 왕이 친히 籍田을 갈고¹¹⁾ 神農씨에게 제사를 지내고 5廟를 정하여 왕실의 존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12牧을 설치하고 모든 군현의 호족인 大監, 弟監을 村長, 村正으로 고쳐 중앙 집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을 통제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9년 9월에는 효를 선양하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각계각층에서 孝子·順孫·義夫·節婦를 찾아 포상하였다.

요컨대 성종대는 대외관계보다 국내의 정치체제 안정에 주력한 시기였

9) 『高麗史節要』 권2, 成宗 12年 5月.

10) 李樹健, 『韓國中世文化的 特性(III)-高麗期』, 『東洋學』 座談會鈔, 단국대, 1977. 318쪽.
<씨는 현지 주둔 병력은 그곳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지의 山川地勢에 익숙하며, 또 가족이 있으므로 자기 지역을 지키는데 적극적이므로 이같은 최승로의 건의가 나왔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타당성있는 견해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전적으로 토착민에게 변방을 맡기는 것은 국가 방어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1) 韓政洙, 2002, 『高麗時代 籍田儀禮의 도입과 운영』, 『역사교육』 83.

고려는 적진의례를 통해 농상공장과 왕실의 위엄을 강조했으며 그 규모는 천자국과 같은 체제를 따랐다.

다.¹²⁾ 흔들림없는 고려왕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성종은 고려 사회의 체제 안정에 주의를 기울여 위의 조처들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문제에만 주력할 즈음 대외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즉 거란의 침략이 시작된 것이다.

3. 성종대 거란의 고려침입과 고려의 대응

거란 聖宗은 983년 10월, 蕭蒲寧 蕭恒德¹³⁾으로 하여금 고려 침략의 준비 작업으로서 여진족 토벌을 벌여 현재의 博川·雲山·泰山 등의 여진족을 진압하고 이듬해 개선하였다. 985년에는 옛 발해의 땅 西京鴨綠府에 세운 定安國을 공격하여 이듬해 정월에 멸망시켰다. 이후 압록강 유역 일대의 여진부족이 거란에 복속하게 되자 991년(성종 10)에 거란은 威寇, 振化, 來遠 등 요새를 압록강 유역에 설치하고 많은 군대를 배치하여 고려와 대전할 준비를 갖추었다.¹⁴⁾

993년 5월 드디어 거란은 고려를 침입하였다. 거란 장수 蕭遜寧은 우선 逢山郡을 쳐서 함락시키고 고려에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였다. 봉산군은 태주와 구주의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고려와 북방 이민족간의 경계선이 었다. 소손녕이 압록강을 건너 바로 고려와 맞서 싸웠다는 사실은 압록강 이남 지역이 거의 고려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침략하게

12) 具山祐, 「高麗 成宗代의 鄉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사회적 갈등」, 『韓國文化研究』 6, 부산대, 1993.

13) 『遼史』 88, 列傳 18, 蕭排押 附 恒德.

소향덕은 字는 遜寧이며 공주와 결혼하여 駙馬都尉가 되어 東京留守까지 지냈으나 다른 여자와 관계한 것을 알게된 공주가 분개하여 죽게 되자, 996년(고려 성종 15)에 太后에 의해 賜死되었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소손녕으로 적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고려사의 기록대로 하겠다.

14) 이용범, 「10-12세기의 국제정세」, 『한국사』 4, 국편위, 1981, 227쪽.

된 사유를 『高麗史』 94, 徐熙傳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1) 우리 나라가 이미 고구려의 옛 영토를 영유하였다.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 우리 강토를 강점하므로 이제 토벌하러 온 것이다.

2) 우리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귀순치 않는 나라는 기어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투항할 것이며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말라.

3) 우리군사 80만이 도착하였다. 만일 강변까지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섬멸할 생각이니 국왕과 신하들은 빨리 우리 군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

4) 너희 나라에서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제 천벌을 주러 온 것이다. 만일 화의를 구하려거든 빨리 와서 항복하라.

거란은 고려가 송과의 교류를 단절시키게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고려의 북진정책에 위협을 느껴 이를 꺾기 위해 소손녕을 보내어 고려에 침입하였다.¹⁵⁾ 그러므로 그들의 의도는 압록강을 경계로 더 이상 북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강화를 맺기를 바랐으며 이같은 거란의 의도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우선 고려를 침입하면서 언급한 소손녕의 말을 분석해보자.

그는 첫째로 고려가 거란의 영토를 침범하므로 토벌하러 왔다고 했다. 북방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고려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다음은 거란이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거란에 귀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정도의 위협으로 고려가 쉽게 귀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므로 다음으로 내세

15) 거란의 출병동기는 영토문제보다 여·송교빙을 여·요로 대치하려는 목적(이병도, 『한국사』,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178쪽), 고려가 송과의 통교를 끊고 그들에게 통하도록 하려는 목적(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 출판부, 1985, 77쪽), 고려측의 영토할양과 여·단 양국간의 교빙관계 수립을 목표로 했다고 보는 견해(박현서, 『북방민족과의 항쟁』, 『한국사』 4, 국편위, 1981, 266쪽)가 있다. 최규성은 1. 고려와 송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고 고려를 거란에 복속시킴으로써 송 정벌에 전념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며 2. 평안도 일대의 땅을 장악하여 고려의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최규성,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 15, 국편위, 1995, 302쪽).

운 것이 80만 대군이였다. 그는 고려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민심을 달래려는 몸짓이 보인다. 고려의 북진책은 軍費를 증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고 하여 고려민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고려의 북방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거란의 강은 양면책은 고려에 동요를 가져왔다. 소손녕은 고려의 태도여하에 따라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질을 줌으로써 고려에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거란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자 高麗 成宗도 직접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 安北府에 이르렀는데 이때, 거란의 공격이 재빨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관리들은 거란의 東京留守 蕭遜寧이 침입하는 즉시 고려의 선봉대와 싸워 蓬山郡을 함락시켰으며, 그가 무려 8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침입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같은 두려움과 소손녕의 회유책이 고려 관리들로 하여금 割地論을 내세워 서경이북의 땅을 거란에 떼어주고 강화를 맺자는 여론을 대두시키게 하였다.

최승로의 “마흘탄을 국경으로 삼자고 한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변의 석성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경종이 정한 바입니다”라는 견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종 초기 고려의 목표는 압록강까지의 진출이었으므로 아직은 더 이상의 영토적 야심은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태조나 경종이 압록강변의 마흘탄이나 석성을 경계로 삼자는 것은 그때 고려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최북단이었기 때문이지 이것을 영원한 고려의 국경선으로 삼으려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고려의 목표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압록강 유역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나온 최승로의 견해는 이상더 북진정책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¹⁶⁾ 이는 무엇보다 국내정세가 안정상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거란과 전쟁을 야기시켜 국내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16) 이정신,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세」, 『한국사연구』 118, 2002.

판단된다. 최승로와 같은 견해의 신라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은¹⁷⁾ 거란이 침입했을 때 평양 이북을 때 주더라도 강화를 맺기를 열망했다고 판단된다. 처음 성종은 할지론을 수용하여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기 위해 서경에서 비축한 군량미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까지도 서희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희는 일단 거란과 만나 그들의 의도가 뭔지 알고난 후에 싸우거나 항복하지는 냉철한 외교 전략가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서희는 서경에 남은 양식을 대동강에 빠뜨리려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게 되자 前民官御事 李知白 등 동조자를 모아 할지론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것은 전쟁 발발 초기단계에서 투항과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서희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경의 양식을 내버리는 상황에 이를 즈음에는 일부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고려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비난을 내세워 서희는 국왕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사실 거란과 강화를 맺는 사실 자체가 태조의 遺訓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일찍이 태조는 거란이 우리의 친척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므로 더불어 화의를 맺을 수 없다고 하여 거란이 보내온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이고 사신을 귀양보낸 일이 있었다.¹⁸⁾ 그러므로 태조 이후 거란과는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교류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거란 위력에 눌러 강화를 맺는다는 것은 고려로 볼 때 매우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서희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확신은 없고, 그렇다고 고개를 숙여 강화를 맺는 문제는 태조대 이래의 국시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우선 외교적인 타협을

17) 성종대는 두 계통의 인물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갔는데 하나는 崔知夢, 崔承老, 崔亮, 李夢游, 王融, 李陽, 金審言 등의 유학을 존중하는 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朴良柔, 徐熙, 李知白, 李謙宜, 韓彥恭, 鄭又玄, 李周憲, 趙之遴 등의 전통적인 사상을 존중하는 행정관리이다. 전자는 전반기에 후자는 후반기에 우세하였으며, 전자는 신라 6두품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일부 후백제 계통이 섞인 데 비해 후자는 호족이 주가 되었다고 하였다(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1. 157-170쪽).

18) 『고려사』 권2, 태조 25년 10월.

생각했던 것이다.

고려 측의 회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손녕은 청천강 남쪽의 安戎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고려의 中郎將 大道秀에게 패배하여 남하할 수가 없었으므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였다.¹⁹⁾ 이같은 상황이 고려와 거란이 원활하게 강화를 맺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강화내용은 알려진 바대로 소손녕은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음에도 고구려 땅을 침식했음과 송과 교류함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서회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강변하고 여진 때문에 교류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였음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 강화의 결과, 고려측은 여진을 내쫓고 압록강 동쪽의 280리의 영토를 장악하며, 고려가 거란을 섬기고 송과의 관계는 단절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려는 강토의 확장, 西女眞의 복속, 麗·丹간의 완충지대 설정이라는 실익을 얻음에 반하여 거란측은 단순한 경역의 양보에 그치지 않고 동여진 경략에 불가결한 요충지를 포기하여 일방적인 고려의 외교적 승리로 파악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외교란 국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며, 나라를 세운지 (927) 이미 60여년이 지나 중국인의 노획한 외교술을 전수 받았으리라고 보이는 거란이 특별히 실책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양보했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기록을 보자.

19) 이에 대해 김위현은 소손녕이 화의를 맺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1. 고려에 대군이 장기간 주둔하거나 깊숙이 진군하였다가는 여진과 가까이 지내오던 고려가 그들과 연결하여 압록강 유역을 차단할 경우와 송과 연결하여 송이 복진할 경우를 고려 2. 만약 80만 대군이 참전하였다면 그들의 군사습관상 打草谷이 불가능하며 당장 인마의 양곡과 먹이가 문제 3. 산악과 강에서 싸워본 경험이 적은 거란군이 전쟁수행에 어려움 4. 고려 침공군 중에는 상당수가 동경도관내의 주민일 것이므로 이들은 본래 발해의 유민 또는 여진계 주민일 것이다. 이들이 전쟁 중 고려에 투귀하거나 밀모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金渭顯, 『徐熙의 外交』,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1999, 119-120쪽).

20) 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1, 266쪽.

B-1)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나라 安北府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는 모두 生女眞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광종 때에 이를 다시 찾고 嘉州·松城(定州 부근)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거란이 침공하는 의도는 이 두 개의 성을 탈취하려는 데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²¹⁾

2) 압록강의 안팎도 역시 우리의 경내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강점하고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한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朝聘의 불통은 여진 때문이다. 만일 여진을 쫓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城堡를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²²⁾

3) (성종 12년 12월) 侍中 朴良柔를 禮幣使로 삼아 거란의 임금을 만나 보게 하였다. 서희가 다시 아뢰기를, “신이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평정하여 옛 땅을 수복한 후에 조빙을 통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겨우 압록강 앞만 수복하였으니 청컨대 강 밖까지 수복함을 기다려 조빙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²³⁾

4) (소손녕이 편지를 보내기를) 황제의 명령에 따라 곧 헤아려서 鴨綠江西里 5개소의 성을 쌓기로 하였으므로 3월 초에 성을 쌓을 곳에 이르러 修築에 착수하려 합니다. 삼가 청하건대 대왕께서 미리 먼저 지휘하여 안북부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280리를 계산하여 적당한 田地를 답사하여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아울러 성을 쌓도록 하되 役夫를 보내어 같은 시기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쌓은 성의 수를 빨리 회보하십시오.²⁴⁾

21) 『高麗史』 94, 徐熙傳 <自契丹東京 至我安北府 數百里之地 皆爲生女眞所據 光宗取之 築嘉州·松城等城 今契丹之來 其志不過取北二城 其聲言取高勾麗舊地者 實恐我也>.

22) 『高麗史』 94, 徐熙傳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女眞盜據其間, 頑詰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不通, 女眞之故也, 若令逐女眞, 還我舊地, 築城堡通道路, 則敢不修聘>.

23) 『高麗史』 94, 徐熙傳 <遣良柔爲禮幣使入覲 熙復奏曰 臣與遜寧約 盪平女眞 收復舊地 然後朝覲可通 今纔收江內 請俟得江外 修聘未晚 成宗曰 久不修聘 恐有後患 遂遣之>.

24) 『高麗史節要』 2, 成宗 13年 2月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并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서희는 거란군의 침입목적이 실제로는 고려와 전면전을 전개하기 보다는 거란의 동경과 근거리에서 거주와 송생의 점령에 본 뜻이 있었음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에 고려가 내세웠던 북진정책을 발전시켜 압록강을 상회하는 옛 고구려 영토의 수복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2)는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교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여진에게 미루고 있다. 3)은 서희가 성종에게 우리의 실익을 챙겨 압록강 너머의 영토까지 확보한 이후에 거란과 천천히 교빙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희가 소손녕과의 외교로 확보하였던 지역이 강동 6주에 그치지 않고 압록강 너머의 여진이 살고 있던 영역도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희의 구상과는 달리 거란 대군의 침입으로 두려움을 갖게 된 성종이 거란과의 화의에 시간을 끌면서 압록강 너머로 북상시켜 나가다가 재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성종이 서둘러 거란과 협상을 추진시킨 결과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 하류 이남선에서 고착되지 않았나 판단된다. 4)에 의하면 소손녕 또한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거란은 송과 주변국을 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려와 맞닿는 국경 변방의 안정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우선 서희가 쌓은 성을 보면, 성종 13년에 여진을 내쫓고 長興鎮·歸化鎮·郭州·龜州에 축성하였으며, 14년에 安義鎮·興化鎮(의주 남 55)·靈州·猛州에 축성하였고 15년에 宣州에 축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성종 초에 義州·龍川·鐵山·通州(宣川) 등 압록강 서쪽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압록강 이남 지역은 이미 고려의 영역과 마찬가지로의 땅이었다. 성종 10년에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었다는 사실은 거의 고려가 이 지역의 영토를 확보했으며, 이 곳에 사는 여진은 고려에 편입되어 고려민이나 다를 바가 없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사실 소손녕과 강화를 통해 획득했다는 강동 6주²⁶⁾는 고려의 영토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거란

25) 최규성, 『서희의 북방정책』,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999, 119-120쪽.

이 생색내며 인정해주는 형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²⁷⁾ 당시 서희의 절실한 과제는 거란과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었고 고려 조정에는 화해를 요구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희는 이를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희는 성종이 거란과의 강화 직후에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천천히 강화하도록 건의하여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었다.

고려와 거란이 강화를 맺은 것은 12년 윤10월이다. 서희가 강화를 맺고 거란 진영에 1주일 정도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이때 고려 성종이 바로 사신을 파견하려 하였다. 3)에서 서희는 이제 겨우 강내의 땅을 수복했다는 말을 하였는데 강은 압록강을 의미한다. 거란이 물러가고 서희가 돌아온 후에 성종이 거란에 사신을 파견한 시기는 불과 1달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같이 급박한 시기에 고려가 여진의 땅을 공략할 여유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고려가 가지고 있는 땅을 거란이 추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듬해에 서희는 고려의 토지로 인정받은 영역에 축성을 한데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고려는 태조이래로 북진정책을 표방하여 광종대에 압록강 유역까지 鎭을 설치하며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이에 거란은 위치상으로 고려의 수중에

26) 서일범,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 『력사과학』, 1982-4, 1982. 150쪽 (註2) 씨는 『高麗史』, 『高麗史節要』에는 江東 6州가 없다. 『高麗史』, 顯宗 3年 6월에 고려 국왕이 명으로 親朝할 수 없다고 하니 거란 임금의 노하여 興化, 通州, 龍州, 鐵州, 郭州, 龜州 등 6성을 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에서 6성으로 나올 따름 강동 6주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강동 6주라는 용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27) 박영해, 「거란 침입 이전 시기 고려의 대외 정책」, 『력사과학』, 1966-1, 1966. 24쪽.
고려에 대하여 고구려 옛땅의 전부를 요구하던 직장 소손녕이 서희 장군과의 담판에서 압록강 이남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고려의 군사적 승리와 서희장군의 뛰어난 외교활동의 성과라고 보겠지만 침략자들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거란이 축성한 3성이 압록강을 넘어오지 못한 것은 그곳까지 고려의 저지선이 나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늦어도 거란침략 전까지 고려의 전초선이 압록강 경계까지 도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들어갈 것이 뻔한 강동 6주를 여진을 몰아낸다면 고려가 소유해도 좋다고 하여 일면 양보하는 듯 하면서 압록강 이북으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가하였다. 태조가 거란과 외교를 맺지 않은 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민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²⁸⁾와 더불어 만일 고려가 고구려 옛땅을 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교한다면 국경선이 거론될 것이고 이때 국경선이 정해진다면 후일 고구려 옛땅을 회복하려 할 때 제동이 가해져서 고려로서는 불리하게 되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종대 거란과의 강화는 항시적인 전쟁상태를 벗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진정책의 의지를 접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강화는 이루어졌고 이후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 이남으로 고착되게 되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소손녕과 회담하여 나름대로는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의 강화는 고려의 국경선을 한정시키고 항구화하여 고려의 북진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서희가 실책을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사력을 앞세워 침략한 거란에 밀린 고려왕조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요동까지 위협해 오는 고려를 미리 사전에 차단시켜 압록강으로 한정시키는 효과에 만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거란의 소손녕은 압록강 북서쪽에 성을 쌓고 고려는 압록강 남동쪽에 축성하자고 약속된 듯 하다. 이같은 강화를 중심으로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우호를 맺었다. 이후 고려와 거란관계는 평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적인 모습에 불과했고 성종에 이어 목종대 이후에도 고려가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이후 고려는 서북지방이 거란의 견제로 이상 더 진출이 어려워지자 동북지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지방에서 여진의 來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려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이정신, 「고려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세」 『한국사연구』, 118, 2002.

4. 성종 이후 고려와 거란의 외교 추이

고려와 거란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각기 필요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두나라 사이에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었다. 거란의 양보든 형식적인 묵인에 불과하든 고려가 거란침입 이전에 비해 義州·龍州·鐵州·通州 등의 영토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란과의 2차·3차 전쟁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요새가 확보되었으며, 거란으로서도 고려와 강화를 맺음으로서 이후 송과의 전쟁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²⁹⁾

거란은 고려와 강화를 맺어 배후의 우려를 없앤 후, 995년(성종 14)에 옛 발해의 상경부근에서 독립적인 정권을 세운 兀惹部와 함흥평야의 여진부락 蒲盧毛朶部까지 정벌하였다.³⁰⁾ 그들은 회군할 때 고려의 영토를 통과하여 위협을 가함으로써 동북쪽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고려의 의지를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다. 고려는 거듭되는 거란의 군사행동을 우려하여 송과 외교관계를 재개하여 1000년(목종 3)에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1003년에는 송의 군사를 거란국경에 주둔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³¹⁾ 하였다. 이후 거란은 송에 침입하여 1004년(목종 7)에 송을 굴복시켰다.

거란은 송과 주변 여진족을 제압한 이후에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즉 철저한 굴복을 요구했던 것이다. 거란은 1차 침입시에 압록강 유역의 영토를 고려의 것으로 인정해 준 사실을 무위로 돌리고 노골적으로 다시 강동 6주를 요구하였다. 당시 거란은 고려의 장수 강조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켜 대역의 죄를 묻기 위해 출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려가

29) 박종기,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한국사』 6, 한길사, 1994, 231쪽.

30) 蒲盧毛朶部는 『高麗史』에 보이는 女眞 30城 部落을 말한다.

李丙燾, 『韓國史』, 中世編, 乙酉文化社, 1961, 186-188쪽.

31) 『宋史』 487, 列傳 246 高麗傳.

송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동계의 여진족을 복속시켜 동북방으로 진출하는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현종 원년) 5월 甲申에 尙書左司郎中 河拱辰과 和州防禦郎中 柳宗을 먼 섬으로 유배하였다. 하공진이 일찍이 동여진을 치다가 패하여 유종이 그것을 한탄하였다. 때마침 여진인 95명이 來朝하려고 和州館에 이르렀는데 유종이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으므로 같이 귀양보냈다. 여진이 거란에게 호소하니 거란 임금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고려의 康兆는 임금을 죽였으므로 대역 죄인이니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죄를 물을 것이다”고 하였다.³²⁾

고려는 거란과 강화한 이후에는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즉 목종 3년에 德州(평안도 안주목 덕천군), 4년에는 永豐鎭(안변)에 축성했으며 6년에 德州·嘉州(가산)·威化(운산)·光化(평북 태천군)에, 8년에 鎭溟縣(宜州)·金壤縣(강원도 通川)에, 9년에 龍津鎭(함남 정평)·龜州·登州(안변)에, 10년에는 興化鎭(義州)·翼嶺縣(강원 양양)에, 11년에 通州(평북 선천)·登州에 축성하였다. 서북계는 거란과 국경선을 맞닿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곳은 고려가 전통적으로 축성을 게을리 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河拱辰·柳宗 등 변방 장수들의 움직임이 보더라도 동북 방면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이같은 동북계 변방의 축성은 고려가 동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거란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했을 것이며³³⁾ 직접 당사자인 여진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여진이 와서 고려정부의 여진인 살해를 하소연하자, 거란 임금은 고려를 쳐서 굴복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었으므로 강조 정변을 구실로 내세워 국왕 교체의

32) 『高麗史』 권4, 世家, 顯宗 元年 5월 甲申 <流尙書左司郎中河拱辰 和州防禦郎中柳宗于遠島 拱辰嘗擊東女眞見敗 宗恨之 會女眞九十五人來朝 至和州館 宗盡殺之 故並坐流 女眞訴于契丹 契丹主謂群臣曰 高麗康兆 弑君大逆也 宜發兵問罪>.

33) 『高麗史』 8, 世家, 文宗 12年 8月 乙巳 <… 昔庚戌之歲 契丹問罪書云 東結構於女眞 西往來於宋國 是欲何謀>.

어지러운 정세를 틈타 고려를 침입했던 것이다. 고려는 이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공진과 유공을 유배시켰으나 거란의 침략을 막지는 못하였다.

2차전을 시작한 요의 聖宗은 강조를 살해하고 개경을 함락시켰으나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興化鎭·龜州·通州·西京 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남쪽으로 내려왔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퇴로가 끊길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성종은 河拱辰 등을 통한 고려 측의 정전제의를 받아들여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군사를 돌이킬 수 밖에 없었다. 이때 물러가던 거란군은 구주 등에서 다시 楊規, 金叔興 부대의 공격을 받아 많은 군대를 잃었다. 이후 거란은 고려가 국왕 친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서둘러 군사를 철수한 명분도 가지지 못했으며 또 그들이 패배한 지역이 興化鎭·龜州·通州 등 고려가 차지하도록 목인한 지역임을 알게 되자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거란은 비로소 그들이 고려가 소유하도록 양해했던 지역이 천혜의 요새지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그들이 고려에게 양여한 땅도 아니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강대국의 억지논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계속 사신을 보내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거란은 1차 침입시에 고려 내부에서 割地論 논의가 있었음을 알게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후 거란의 파상적인 고려침입과 현종 9년(1018)의 대규모의 침략은 이제 강동 6주의 반환을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강감찬 등이 이끄는 고려 군사들의 철저한 방어로 蕭排押이 이끄는 10만의 거란군은 참패하고 물러갔다. 이후 전쟁에 지친 두 나라는 화약을 맺어 전쟁을 종결지었다. 거란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나 강동 6주 반환을 계속 강조하여 고려가 그 이상의 북방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려가 북방진출의 꿈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는 방어를 위해 혹은 북방진출을 위해 축성하였다. 현종 원년에는 德州에 축성했으며 3년에 長州(定平)·金壤(강원도 통천)에 성을 쌓

았다. 그러나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고려의 북방정책은 점차 소극적으로 바뀌어갔다.

현종 20년에 이르러서 발해의 유민으로서 거란의 東京將軍이었던 大延林이 반란을 일으켜 興遼國을 세우고는 거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려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 틈을 타서 刑部尙書 郭元이 압록강 동쪽을 점령하려고 군사를 움직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 崔士威는 平章事 蔡忠順과 함께 두 나라가 서로 싸우도록 방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국왕과 대다수 관원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여기에서 발해를 인척의 국가로 옹호했던 태조이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거란을 공격하려는 자세보다 어부지리를 택하는 안전한 정책을 강구하려 한 태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후 고려는 德宗대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이민족의 남하에 대비하여 북방의 각 요충지에 城寨를 구축해 왔다. 그러다가 현종대에 거란과 강화를 맺은 다음 德宗 2년에 이르러서 平章事 柳韶에게 명하여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靖宗 10년에 완성시켰다. 천리장성은 西海邊의 옛 國內城 경계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하여 동으로 威遠·興化·靜州·寧海·寧德·寧朔·雲州·安水·淸塞·平虜·寧遠·定戎·猛州·朔州 등의 13성을 걸쳐 耀德·靜邊·和州 등에 이르렀다.

서희가 강화를 맺어 확보한 영역을 토대로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고려가 한반도 내에서만 자족하겠다는 표시였다. 원래 장성이란 국경선을 표시하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낼 뿐 북방의 이민족이 침범하는데는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중국이 일찍이 만리장성을 쌓았더라도 이민족이 침범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 점은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장성은 고려와 이민족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장성을 쌓음으로써 고려민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경계를 가져와, 고려의 북방정책에 대한 의식구조가 바뀌어³⁴⁾ 예종대 9성 반환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4) 李龍範, 前掲 座談會鈔, 『東洋學』 7, 단국대, 1977, 324쪽.

서희의 외교는 거란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넓혀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압록강 이남의 영토확보라는 현상유지에 만족한 외교정책으로 그친 아쉬움이 있다.

5. 문종 이후의 대외관계와 윤관의 9성

문종은 4년에 渭州城(평안도 泰川), 安義鎭의 榛子 農場에 성을 쌓아 寧朔鎭(태천)이라 하였으며 21년에 德州, 28년에 元興鎭(함길도 預原)·龍州·渭州에 성을 修築하였다. 또한 宣宗 8년에는 안변도호부 경내의 霜陰縣에 城壘를 쌓았다. 문종 이후의 기록에는 축성보다 귀화에 주력했음을 볼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이 많은 시사를 준다.

C-1) 丁卯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東蕃 주장 阿兜幹은 來附한 이래로 오랫동안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거란에 투화하였으니 그 죄가 아주 큼니다. 그 당의 수령 高之問 등은 지금 蕃境에 있으니 청컨대 가만히 군사를 보내어 붙잡아 關內로 끌어들여 그 연유를 심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소서”라고 하니, 이에 따랐다.³⁵⁾

2) 丁未에 서북면 병마사가 아뢰기를, “서여진의 주장 漫頭弗 등 諸蕃이 청하기를, 東蕃의 예에 의하여 州郡을 나누어 설치해 준다면 길이 藩國이 되어 감히 거란의 蕃人들과 통교치 아니하겠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平虜鎭에 가까운 경계의 蕃人 우두머리인 柔遠將軍 骨於夫와 覓害村要結 등이 고하기를, ‘우리들은 일찍이 伊齊村에 살면서 거란의 大完(거란의 관직명)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두 번이나 招諭를 받았으며, 기유년(문종 23) 11월에는 조정에 나아가서 두텁게 은혜를 입고 또 관직도 받

35) 『高麗史』 7, 文宗 元年 2月 丁卯 <都兵馬使奏 東蕃酋長阿兜幹 內附以來 久承恩賞 背我投丹 罪莫大焉 其黨首領高之問等 今在蕃境 請密遣軍士 拘執入關 拷訊端由 依律科罪 從之>.

았으니 감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호적에 붙여 길이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³⁶⁾

3) 丙子에 制하기를, “동북 변방 15州 바깥의 蕃人들이 잇달아 귀부하여 郡縣을 두어 달라는 청원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으니 이는 실로 중요 사직의 신령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³⁷⁾

위의 기록은 귀화한 여진에게 단순히 관직을 수여하고 공물을 하사하는 단계를 지나 문종대의 귀부는 단순한 羈縻나 외교적인 형식절차가 아니라 완전히 고려의 州郡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반하여 고려의 영향권을 이탈하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³⁸⁾

36) 『高麗史』 9, 世家 27年 5月 丁未 <西北面兵馬使奏 西女眞酋長曼豆弗等諸蕃 請依東蕃例 分置州郡 永爲蕃翰 不敢與契丹蕃人交通 … 平虜鎮近境蕃帥 柔遠將軍骨於夫 及覓害村要結 等告云 我等曾居伊齊村 爲契丹大完 遷者 再蒙招諭 於己酉年十一月 赴朝 厚承恩賚 且受官職 不勝感戴 願所居去此四百里 往復爲難 請與狄耶好等五戶 引契丹化內蕃人 內徙覓害村 附籍 永爲蕃屏>.

37) 『高麗史』 9, 世家 27年 4月 <丙子制曰 東北邊十五州外蕃人 相繼歸附 願置郡縣 于今不絕 此實賴宗廟社稷之靈>.

38) 추명엽, 「고려전기 '변(蕃)인식과 동·서변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002, 38·43·44쪽.

11세기 초 중엽 이후에는 고려와 북방 제종족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大邦과 諸蕃의 관계에 있었으며 군신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번적의 출현, 완안부 세력의 흥기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고려와 동서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자 변군 설치를 위한 강력한 변경지배를 위해 정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았다.

고려의 경우,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법률에 기초하여 변경 이민족을 다스렸으리라 짐작된다. 『唐律疏議』 1, 名例 6, 十惡(한국법제연구원, 199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율문4 三曰 謀叛(나라를 배반하고 적국을 따르려고 꾀함을 말한다.)

疏議 6 ; 사람이 자기나라를 배반하고 장차 蕃國으로 투항하려고 꾀하거나 성을 넘겨주면서 적대정권에 항복하려고 하거나 관할지역을 넘겨주면서 외국으로 달아나려고 한 행위 등이다(주 59 ; 國은 정통의 현왕조. 정통의 현왕조에서 이탈하여 외국 또는 괴뢰정권측에 붙는 것이 叛이다. 反과 叛의 차이는 조정을 향해 정면으로 공격하느냐 조정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는가의 차이이다. … 모반에 대한 형은 교수형이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참수형, 그 처자는 유형 2천리에 처하며 규모가 크면 부모도 연좌된다).

문종대는 위의 기록 외에도 변방 여진족의 귀부가 이어졌는데³⁹⁾ 고려는 이들을 엄격한 법적 제재와 함께 다스렸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천리장성을 쌓은 이래로 변방에서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형태가 부정되고 고려민으로 편입이나 아니냐, 즉 나와 他者의 경계가 분명해졌음을 나타낸다.

현종 이후 고려는 서북방면의 진출을 포기하고 동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문종대부터는 동북지방의 영토와 그곳의 주민을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위무책을 시행하는 등⁴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시도는 肅宗대에 거란에 이어 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完顔部 여진이 등장함으로써 동북방의 영역과 주민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다. 즉 完顔部와의 갈등이 肅宗·睿宗대의 여진정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숙종 9년의 여진정벌은 무력에 의해 왕위에 오른 숙종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즉 대여진 강경책을 시행하여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게 하고, 여진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실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는 왕과 측근세력의 의도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⁴¹⁾ 이와 더불어 예종대 윤관의 여진 정벌⁴²⁾ 역시 왕실과 윤관 세력이

39) 金庠基, 「女眞關係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東方史論叢』, 서울대 出版部, 1974, 491-507쪽.

40) 『高麗史』 9, 世家 文宗 27年 5月.

41) 金남규, 전계논문, 1996, 199쪽.

42) 윤관의 여진정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津田左右吉, 「尹瓘經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II, 1913.

池内宏, 「完顔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歷史地理報告書』, 1921.

稻葉岩吉, 「高麗尹瓘九城考」, 『史林』 16-1, 1931.

尹武炳, 「吉州城과 公嶮鎮」, 『歷史學報』 10, 1958.

金庠基, 「女眞關係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1959.

金九鎮, 「公嶮鎮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1976.

方東仁, 「尹瓘九城再考-九城設置範圍를 중심으로-」, 『白山學報』 21, 1976.

박영해, 「11세기말-12세기초 녀진(금)의 침입을 막기 위한 고려의 대외활동」, 『역사과학』, 1977-1, 1977.

金九鎮, 「尹瓘九城의 範圍와 朝鮮六鎮의 開拓」, 『史叢』 21·22, 1977.

문벌귀족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전시체제 유지가 중요 목표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⁴³⁾ 그러나 동북지방으로 뺏어가려는 고려의 의지와 새롭게 대두하는 완안부 여진과의 충돌이 일차적인 원인은 의심할 수 없다.

완안부의 추장 烏古迺(우구나이)의 뒤를 이은 諱歌(후일의 穆宗)는 주변의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지금의 간도지방을 차지하고 다시 남하하여 曷懶甸 지역까지 세력이 미치게 되었다. 갈라전 지역의 여진인들은 본래 고려에 來附하며 살고 있었는데 완안부가 강성해지면서 갈라전으로 세력을 뺏어오자 그들 중에 점차 완안부와 내통하여 내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⁴⁴⁾ 이를 막기 위해 고려는 여진과 정면으로 격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숙종과 예종의 여진정벌은 당시 거란이 쇠퇴하여 힘의 공백이 생기자 이를 틈타 여진을 제압함으로써 고려를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⁴⁵⁾ 따라서 이들의 정책은 대외정세의 변동을 미리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한 뛰어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9성을 환부함으로써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方東仁, 「高麗의 東北地方境域에 관한 연구-특히 尹瓘의 九城設置範圍를 중심으로-, 『嶺東文化』, 創刊號, 1980.

羅滿洙, 「高麗前期 對女眞政策과 尹瓘의 北征」, 『軍史』 7, 1980.

최희림, 「천리장성의 축성상 특징과 그 군사적 거점인 진성에 대하여」 1·2, 『역사과학』 1986-1·2, 1986.

鄭修芽, 「尹瓘勢力的 形成」, 『農壇學報』 66, 1988.

崔圭成,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 『가라문화』 12, 1995.

金南奎, 「高麗中葉의 對女眞政策」, 『가라문화』 13, 1996.

金南奎,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慶大史論』 10, 1997.

이 중에서 여진정벌을 대내적인 권력다툼에 초점을 맞춘 정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외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43) 鄭修芽, 전계논문, 1988.

金光植, 「高麗 肅宗代의 王權과 寺院勢力」, 『白山學報』 36, 1989, 142·143쪽.

44) 崔圭成, 전계논문, 1995, 329쪽.

45) 박종기, 「실리와 공존, 줄타기 외교진술」,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268쪽.

예종 2년에 尹瓘은 別武班을 편성하여 完安부 여진을 소탕하였다. 이 틈을 타서 尹瓘은 거주하고 있던 동북지방 여진인들을 축출하고 완전히 고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9성을 축성하고 남도의 주민을 이주시켜 농사짓게 하였다.⁴⁶⁾ 한때 고려는 동북지방을 차지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문벌귀족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국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질서의 수립이라는 정치적인 효과뿐 아니라 영토확장을 통한 농경지의 획득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⁴⁷⁾ 그러나 기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여진인들을 고려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조리 축출하려는 정책은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던 여진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위기였다. 여진인들은 그들의 생존권,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저항하여 결국 고려로 하여금 반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⁴⁸⁾

이때 조정의 공론이 9성 반환을 찬성하고,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킨 尹瓘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尹瓘은 9성 수축 과정에서 기존 살고 있던 여진인을 축출하고 남쪽의 고려민들을 사민시켰는데 그 수가 무려 75,000여호에 달했다고 한다.⁴⁹⁾ 이것은 고려에 우호적이던 토착 여진인들을 분노하게 하여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尹瓘은 그들과 고려민이 다르다는 국가나 민족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진인들과 거리감을 두어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실책을 저질렀다.

고려 내부에서도 戰勢의 악화와 전쟁수행 과정에서 물자조달이 어렵다는 비판이 9성을 반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별무반이라는 특수군대를 편성해야만 했던 고려 정규 군사력의 감소와 국력의 쇠퇴

46) 『高麗史節要』 7, 睿宗 3年 3月.

이것을 金光洙씨는 고려사회의 농지개혁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金光洙,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 7, 단국대, 1977).

47) 박종기, 『한국사』 6, 한길사, 1994, 235쪽.

48) 金九鎮, 『尹瓘 9城의 範圍와 朝鮮 6鎮의 開拓』, 『史叢』 21·22合, 1977, 212-213쪽.

49) 김구진, 전제논문, 『사총』 21·22, 1977, 225-226쪽 도표 참조.

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보여진다.⁵⁰⁾ 결국 이를 반환함으로써 고려는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여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건국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고구려 고토회복이란 과업수행을 통한 북진정책도 좌절되고 말았다.⁵¹⁾ 9성 반환 조건으로 여진이 다시는 고려를 침입하지 않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금의 대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맹세였다. 예종이 정벌을 계기로 대내적으로는 문벌귀족의 정권장악을 막고 왕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하더라도⁵²⁾ 대외정책 면에서는 9성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국가위신의 추락, 고려에 귀부한 여진 지역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⁵³⁾

필요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하여 윤관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111년(예종 6)에 죽었다. 그가 9성을 반납한지 2년 만에 죽었다는 사실은 9성 반환에 대한 분노와 울화를 참지못해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비록 반대여론도 있었지만 9성 반환 사건은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관리들이 고구려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이 고려의 목표라는 인식이 흐려졌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미 이전 성종대에 압록강 유역으로 국경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영토인식을 한정시켜 그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된다.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성종이나 서희를 위시한 당대의 관리들이 전쟁차단에 지나치게 주력한 나머지 스스로 압록강 유역으로 한정시켰고 이후 고려가 진출하고자 했을 때 북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0) 박영해, 전계논문, 1977, 21쪽.

씨는 고려 조정의 관리들이 여러 이유를 내세워 9성 반환을 주장하였지만 그 근본요인은 고려봉건통치제도 자체의 사회계급적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국력과 병력의 현저한 쇠퇴에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필자도 같은 견해이다.

51) 崔圭成, 전계논문, 1995, 329쪽 참조.

52) 정수아, 전계논문.

53) 方東仁,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1985, 105쪽.

그러나 완안부 여진의 남하를 견제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김구진, 전계논문, 1977, 215쪽).

또한 애써서 획득한 9성의 설치와 환부도 동북지방의 여진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맺 음 말

고려는 국가 건립초부터 북진정책을 국시로 삼아 옛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태조의 유훈을 본받아 광종대에 이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방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점점 강성해져서 고구려 영역을 장악하면서, 동북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거란과 고려의 북진책은 성종대에 압록강 유역에서 부딪히게 되었다.

이제 993년(성종 12년)에 거란이 고려를 침입함으로써 고려는 왕조수립 이래 최초로 이민족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高麗史』에 의하면 이때 고려조정은 항복하고 화친을 구걸하자는 측과 서경 이북의 땅을 할양하고 靑嶺으로 경계를 삼자는 측의 주장으로 나뉘었다. 대외적인 확장보다 국내의 체제정비를 중시한 성종은 항복을 하더라도 거란과의 전쟁을 가능한 빨리 끝맺으려 하였다. 성종은 割地論을 쫓기로 하고 서경창고의 곡식을 주민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잉여양곡을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동강에 버리기로 하였다. 이때 中軍使 徐熙는 양곡의 처분을 중지시키도록 한 후 땅을 내어줄 바에야 한번 결전을 시도한 후에 할양해도 늦지 않다고 하며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정책의 실현을 국시로 내걸었지만 이제 성종대에 이르면 중요성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 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나 북진정책의 목표가 국가확립, 고려만들기가 최우선이었던 만큼 성종은 태조에서 경종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체제가 안정된 성종대에 이르면 이제 고려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고려적인 것을 모색하는 첫 단계로 최승로를 등용하여 유학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시도하였다.

거란의 출병동기는 ① 고려측의 영토할양과 ② 여·단 양국간의 교빙관계 수립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서희의 능란한 외교술에 의해 고려는 여진을 축출하고 장흥(태천) 귀화의 2진과 구주 광주에 성을 쌓고 이듬해에는 다시 안의(안주) 홍화(의주 동)를, 다시 그 이듬해에는 선주(선천) 맹주에 축성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기존 견해에서는 고려 측으로 보면 280리의 고토를 점거함으로써 강토의 확장, 서여진의 복속,麗·丹간의 완충지대 설정이라는 실익을 얻음에 반하여 거란측으로는 단순한 경역의 양보에 그치지 않고 제 2차 거란의 침입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거란의 동여진 경략에는 불가결한 요충지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 외교술의 일방적 우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외교란 국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며, 나라를 세운지(927) 이미 60여년이 지나 중국인의 노획한 외교술을 전수 받았으리라고 보이는 거란이 특별히 실책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양보했다면 그 이면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려는 태조이래로 북진정책을 표방하여 광종대에 압록강 유역까지 鎭을 설치하며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이에 거란은 현실적으로 고려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강동 6주를 고려의 영토로 추인하여 일면 양보하는 듯 하면서 압록강 이북으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다. 태조가 거란과 외교를 맺지 않은 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민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만일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을 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교한다면 국경선이 거론될 것이고 이때 국경선이 정해진다면 후일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려 할 때 제동이 가해져서 고려로서는 불리하게 되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종대의 거란과의 강화는 항시적인 전쟁상태를 벗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진정책의 의

지를 접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강화는 이루어졌고 이후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 이남으로 고착되게 되었다.

고려와 강화를 맺은 이후에도 거란은 고려가 송과의 교류를 끊지 않고 국왕이 고려에 조회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강동 6주의 반납을 내세우며 다시 침략하였다. 고려는 강감찬 등 여러 장수에 힘입어 승리하고 다시 거란과 강화를 맺고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후 고려는 서북방면의 진출을 포기하고 동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에 주력하였다. 이같은 고려의 방침이 점점 강성해지는 완안부 여진과의 갈등을 야기시켜 1107(예종 2)년에 윤관의 여진정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윤관은 여진을 몰아내고 9성을 설치했지만 여진의 계속적인 공격과 반환해 달라는 애원에 못이겨 9성을 돌려주었다. 이때 조정의 공론이 9성 반환을 찬성하고,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킨 윤관에 대해 죄를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이에 윤관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111년(예종 6)에 죽었다. 그가 9성을 반납한지 2년 만에 죽었다는 사실은 9성 반환에 대한 분노와 울화를 참지 못해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 사건은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상당수의 관리들이 고구려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이 고려의 목표라는 인식이 흐려졌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미 이전 성종대에 압록강 유역으로 경계를 한정시키고 정종대의 천리장성으로 영토의식을 고정시켜 그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된다.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성종이나 서희를 위시한 당대의 관리들이 전쟁 차단에 지나치게 주력한 나머지 스스로 압록강 유역으로 한정시켰고 이후 고려가 북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영토의식은 후일 예종대에 9성을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환함으로써 동북지방의 여진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을 축소시킨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주제어 : 고려의 대외정책, 강동 6주, 9성, 윤관, 거란

<ABSTRACT>

A Review of Koryeo's Foreign Policy as seen through
the 6 Garrison Settlements of Kang-dong
and the 9 Fortresses Built by Yun Kwan

Lee, Jung-Shin

Immediately after the foundation of the dynasty, Koryeo, in order to restore the old territory of Koguryeo, adopted a northward expansion policy as its national policy. Based on king Taejo's final instructions, the development of northern areas was vigorously carried out during the reign of king Kwangjong. As a result, the Khitan's; who had destroyed the Balhae dynasty and occupied the old territory of Koguryeo; policy of gaining supremacy in Northeast Asia came into collision with Koryeo's policy of northward expansion into the area of the Yalu Ri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 Khitan invaded Koryeo in 993 (the 12th year of king Seongjong), marking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yeo that the dynasty was forced to fight against the Khitan. According to the Koryeosa (History of the Koryeo dynasty), the Koryeo government was split between proponents of two different responses to the invasion: one advocating surrender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th the Khitan, while the other advocated ceding the northern territory of Seokyeong to the Khitan and making Jeolryeong-a hill located in the southeast of Hwangju county in Hwanghae province- the new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King Seongjong, who regarded the

stabilizing of the domestic system as more important than the expansion of the dynasty's territories intended to end this war as soon as possible even if this meant having to surrender. He decided to follow the advocacy of the cession of territory and ordered that grain stored in the Seokyeong silos be distributed to the local residents. He also ordered that the surplus of grain be thrown into the Daedong River in order to prevent the Khitan from getting their hands on the grain. Seo-Hee for his part, suggested that the disposal of the grain be halted and that prior to any surrender an attempt should be made to wage a decisive diplomatic battle.

While the Koryeo dynasty adopted a policy of northward expansion as its national policy from the beginning,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seems to have weaken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t appears that king Seongjong judged that the objective of the policy of northward expansion and succession of Koguryeo, to establish Koryeo as a state, had been accomplished during the reigns of king Taejo and king Kyeongjo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n which the national system was stabilized, was in fact the stag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yeo society were defined. As such, king Seongjong strengthened Confucianism and as the first step in form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yeo, appointed Choi Sung-Ro. In addition the king also strived to centralize power by dispatching provincial governors throughout the land.

The Khitan's dispatch of troops to Koryeo was intended to seize territory and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Koryeo. However, due to Seo-Hee's diplomatic strategy, Koryeo was able to expel the Jurchens and build two military bases in Janghung (Taecheon), Kwihwa as well as fortresses in 6 villages: Guju, Gwakju, Anoui (Anju), Hunghwa (Ouiju), Seonju (Seoncheon) and Maengju.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of this historical event, the superiority of Koryeo's diplomacy can be seen in that they managed to obtain practical advantages, such as, the expansion of its territories, the formation of an

alliance with the Western Jurchen,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buffer zone between the Koryeo and Khitan territories. The Khitan, on the other hand, as revealed in their 2nd invasion of Koryeo, can be seen as having given up important strategic territory needed to attack the Jurchens. However, diplomacy is usually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a country's power. Therefore, we can hardly assert that the Khitan made a mistak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Khitan, whose country had been formed some 60 years before, in 927 to be exact, must have learned some cunning diplomatic strategies from the Chinese. Therefore, if the Khitan conceded these territories, there must have been a hidden reason for them doing so.

During the reign of king Kwangjong, in keeping with the northward expansion policy advocated since the reign of king Taejo, Koryeo expanded its territories and built military bases in the areas along the Yalu River. In spite of this expansion, further advancement into the northern areas of the Yalu River, was limited as the Khitan, who despite ceding the areas where the 6 military fortresses in Kangdong were situated to Koryeo, blocked any further northward moves. The official reason for king Taejo's refusal to form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Khitan was based on the latter's destruction of the Pohai dynasty. In reality, King Taejo wanted to assure the complete integration of the Koryeo people first. Moreover, if Koryeo decid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Khitan without first recovering the old territories of Koguryeo,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have to be discussed and once this border was decided upon, it would be harder for Koryeo to recover the territories occupied by Koguryeo in the future. While the peace negotiations with the Khita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helped to remove the possibility of war, the abandonment of the northward expansion policy proved to be a hard pill to swallow. Nevertheless, a peace treaty was concluded and the territory of Koryeo was set as lying south of the Yalu River.

Even after a peace treaty with Koryeo was signed, the Khitan invaded Koryeo again. Their reasoning was that Koryeo had not severed its relations with the Song dynasty and had not implemented the peace treaty, for which they demanded the return of the 6 military fortresses in Kangdong. Koryeo was able to win this war due to the leadership of generals such as Kang Kam-Chan, make a new peace treaty with the Khitan, and build the Long Wall. As a result of this war, Koryeo ceded the entrance to its northwestern areas and concentrated on expanding in a northeastern direction. This policy caused conflicts with the Jurchens and led to Yun Kwan's conquest of Jurchen territories in 1107 (the 2nd year of king Yejong). During this conflict Yun Kwan was able to drive out the Jurchen residents and build 9 fortresses. However, they were forced to return the 9 fortresses to the Jurchens as a result of their simultaneous attacks and appeals for these fortresses to be returned. At the time the opinion of the Koryeo government was that the 9 fortresses be returned and that Yun Kwan be punished as he had caused this unnecessary war. Yun Kwan was deprived of his office and eventually died in 1111 (the 6th year of king Yejong). The fact that he died a mere two years after the return of the 9 fortresses has been seen by many as having been caused by his anger and resentment at having to return the 9 fortresses.

This incident proves that by this time the government's recognition of Koryeo's objectives of regaining the old territories of Goguryeo had become blurred. This confusion wa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border had been set at the Yalu Ri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that the acceptance of the outlines of the territory of Koryeo began to permeate as a result of the erection of the Long Wall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ng. When the Khitan invaded, king Seongjong and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Seo-Hee agreed to a new border set at the Yalu River in order to avert a wider war. This in turn resulted in weakening the passion for Koryeo's further northward expansion. The expansion mindset was further weakened

as a result of, despite the fact that Yun Kwan built the 9 fortresses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the return of the 9 fortresses to the Jurchens.

Key Words : Koryeo's foreign policy, 6 garrison settlements of Kangdong, 9 fortresses, Yun Kwan, Khitan

K C I